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가 내 노래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매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를 대신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주제는 그 사랑하는 자가 아끼던 포도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 한 노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매우 기름진 땅에 세워졌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매우 아꼈고, 온 정성을 다해 땅을 기경한 후 그곳에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높은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기에 그로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던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거기에 맺힌 것은 시고 쓴, 먹지 못할 열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포도원 주인이 직접 노래의 화자가 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원과 자신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내 수고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내 기대와 달리 먹지 못할 열매가 포도원에 맺힌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 번 노래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주인은 애지중지했던 포도원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지켜주었던 모든 울타리를 걷고, 돌담을 허물어 짐승들에 의해 그 포도원이 짓밟히도록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므로 찢레와 가시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심지어 구름에게 명하여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이 주인은 누구이기에, 구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2. 우리의 노래, 새 노래

이사야는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끼는 포도원과 그곳에 심긴 것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민 중에 택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모든 보호와 공급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미쉬파트)를 바라셨지만 그 땅에는 포학(미쉬파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 공의(찌다카)가 세워지길 기대하셨지만, 약자들의 울부짖음(찌아카)만 넘쳐났습니다. 못 먹을 열매를 내는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처럼(삼하 12), 이 포도원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을 향해 분노하는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을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 쓴 열매를 내고만 기름진 포도원의 이야기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애통의 노래를 자기의 노래로 삼는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원의 회복을 약속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사 27:2-3). 하나님은 무너진 포도원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는 가슴 아픈 노래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새 노래가 됩니다(히 12:11).